* 성성재 금난수가 세운 정자, 고산정 *

고산정은 정유재란시 안동 수성장으로 활약하여 좌승지에 증직된 바 있는 성성재 금난수(惺惺齋 琴蘭秀 1530~1599)선생의 정자이다. 선생의 행상(行狀)에 따르면 선생이 35세되던 1564년(명종 19)에 당시 선성현(宣城縣)의 명승지일(名勝之一)이었던 가송협(佳松峽)에 짓고 일동정사(日東精舍)라 부르며 늘 경전을 가까이 한 채 유유자적하였다 한다. 안동팔경의 하나인 가송협의 단애(斷崖)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주위에는 외병산(外屛山)과 내병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낙동강의 상류인 가송협의 건너에는 송림과 함께 독산이 솟아 있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건립당시 사정과 주위의 절경에 대해서는「일동록(日洞錄)」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창건 당시부터 예안지방의 대표적인 절경으로 알려져 그의 스승인 퇴계(退溪)선생도 누차 문인들과 함께 와서 영시유상(詠詩遊賞)하였다 한다. ''고산제영''(孤山題詠)에는 퇴계문도를 비롯하여 재경관인(在京官人)들까지 찾아 차운(次韻)한 시(詩)가 수백 수에 달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기와집인데 3m가량의 축대를 쌓아 대지를 조성한 후 얕은 기단 위에 자연석 덤벙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다. 모두 원주를 사용하였는데 주두상부에는 보아지를 끼웠으나 외부에는 초각을 하지 않고 내부에만 초각을 하였다. 5량가인데 종량 위에는 키 큰 동자주를 세워 여기에 소로를 끼워 장혀와 창방을 받게 하였으며, 좌측 마루상부에는 우물반자를 설치하였고 귀에는 선자연을 걸었다.

어간의 우물마루를 중심으로 좌, 우에 온돌방을 꾸몄는데 좌측방은 통간으로 하였으나 좌측방은 뒤쪽의 1간만을 온돌방으로 꾸며 결국 마루는 ㄱ자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면과 양측면에는 계자난간을 둘렀는데 정자로의 출입은 난간의 양측 끝에서만 하게 하였다. 주위의 빼어난 경관과 잘 어울리게 조성한 조선시대 정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건물도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 성성재 금난수 선생에 대하여 *

금난수는 35세인 1564년(명종 19)에 이미 안동 예안면(禮安面) 부포리에 있는 현재의 성성재 종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아래쪽에 성재(惺齋)라는 정자를 짓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고산정은 그 후에 지은 정자로서, 주변 경관이 뛰어나 이황을 비롯한 선비들의 내왕이 잦았던 곳이다. 정자 앞으로 강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맞은편 산기슭에는 물맛 좋은 옹달샘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 학이 많이 서식했다고 하나 지금은 없다. 정자 왼쪽에 조선총독부에서 세운 조학번식

지(鳥鶴蕃殖地)라는 천연기념물 비가 서 있다.

봉화금씨 성성재종택에 소장되었던 필사본이다. 청량산 안에 자리 잡은 고산(孤山) 주변 경치 및 고산정(孤山亭)에 대해 읊은 시와 문을 모아놓은 글이다. 이곳에 은거했던 인물은 금난수(1530~1604)이다.

이 『고산제영』에는 금난수 및 퇴계 이황, 이문량(李文樑), 이중량(李仲樑), 이국량(李國樑), 구봉령(具鳳齡), 조사경(趙士敬), 이녕(李寧), 정유일(鄭惟一), 김극일(金克一), 김성일(金誠一), 김부륜(金富倫), 정탁(鄭琢), 권경보(權東甫), 권경수(權景受), 이보경(李輔卿), 금협지(琴夾之), 금훈지(琴壎之), 금사임(琴士任), 권호문(權好文), 배삼익(裵三益), 정곤수(鄭崑壽), 유경임(柳景任), 정구(鄭逑), 권문해(權文海), 오수영(吳守盈), 김륵(金玏), 김수일(金守一), 홍리상(洪履祥), **신지제(申之悌)**, 윤근수(尹根壽), 윤두수(尹斗壽), 김명원(金命元), 홍성민(洪聖民), 심희수(沈喜壽), 이양원(李陽元), 유홍(兪泓), 우성전(禹性傳), 김취려(金就礪), 유근(柳根), 이항복(李恒福), 오억령(吳億齡), 정작(鄭碏), 양사기(楊士奇), 김돈서(金敦敍), **신력(申櫟)**, 김담수(金聃壽), 한준겸(韓浚謙), 김령(金坽), 이민구(李敏求), 김택룡(金澤龍), 서익(徐益), 금경(琴憬), 금업, 금개(琴愷), 금성휘(琴聖徽), 이휘일(李徽逸), 이현일(李玄逸), 정옥(鄭玉), 권만(權萬), 이야순(李野淳)의 시가 실려 있고, 금각(琴恪)의 「일동록(日洞錄)」과 조술도(趙述道)의 「고산정중수상량문(孤山亭重修上樑文)」이 실려 있다.

금난수는 본관이 봉화(奉化), 자는 문원(聞遠), 호는 성재(惺齋)이다. 금난수는 평소 청량산 일동(日洞)의 산수(山水)를 사랑하여 일찍이 취벽(翠壁)의 옆에 몇 칸의 정사(精舍)를 지었는데, 고산과 바로 마주 대하였다. 이에 자호(自號)를 고산주인(孤山主人)이라 하고 이곳에 은거하였다.